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매일묵상 예담	
7.20(월)	사사기 16장
7.21(화)	사사기 17장
7.22(수)	사사기 18장
7.23(목)	사사기 19장
7.24(금)	사사기 20-21장
1년 1독 성경읽기	
7.20(월)	욥기 7~15장
7.21(화)	욥기 16~25장
7.22(수)	욥기 26~35장
7.23(목)	욥기 36~42장
7.24(금)	시편 93-100편

예담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담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안내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담교회 홈페이지 QR



[...]사사들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실인의 거룩한 삶을 명하셨으나, 그는 그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사사로서 삼손의 첫 행보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의 죄악을 좇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혼인 과정에서 긴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정작 인상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결국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다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큰 싸움에 이르렀습니다. 철저히 삼손의 욕망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고, 그의 개인적인 복수로 일이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는지, 사사요 나실인인 자신의 소명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부주의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는 가나안의 죄를 좇아 타락해 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삼손의 실패와 그로 인한 혼란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삼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은 잊어버리고, 말기신 소명에도 무관심합니다. 나실인의 소명을 잊은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소명을 잊은 채 그저 내 눈에 좋은 것을 좇아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소명을 잊은 삼손을 사용하신 것처럼,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함은 또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블레셋과 싸워 이겼으니 삼손이 훌륭한 사사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어떤 식으로든 쓰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시지만, 우리는 각자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시 쓰임 받았으나 결국 버려지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악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믿음의 열심을 다하며 삽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원예담교회

2026년 7월의 예담교회

첫째 주(7.5)

상반기 결산 제직회(7.5)

믿음읽기(7.6)

둘째 주(7.12)

함남노회 임원회(7.14)

셋째 주(7.19)

교육부·친교행사부 연석회의(7.19)

넷째 주(7.26)

영화관람 ‘다윗’(7.26)

담임목사 강 민

전라북도 남원시 큰들4길 6-1

063)626-3530

www.namwonyedam.org



주일오전예배

예배인도_ 강민목사

설교제목: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설교본문: 다니엘 5장 22-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이다.

묵상기도_ 다같이
찬양_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교독문_ 73번 이사야 65장
사도신경_ 다같이
찬양_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참회와 간구의 기도_ 다같이
주일학교
주기도문_ 다같이
기도_ 김은영집사
성경봉독_ 임유화권사
설교_ 강민목사
찬양_ 찬양의기쁨 217장 오직 주님만
헌금_ 헌금위원: 임혜정집사
광고_ 강민목사
찬양_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축도_ 강민목사

예배안내위원 조인수집사 임정은집사
주일식사봉사 루디아(드보라)
주일학교돌봄 이옥희집사

주일저녁예배

인도_ 강민목사

묵상기도_ 다같이
성경말씀_ 에스겔 33장 17-20절
설교_ 돌이키고 돌이키는 삶
찬양_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기도문_ 다같이

우리 예배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수요기도회

인도_ 강민목사

묵상기도_ 다같이
성경말씀_ 갈라디아 5장 16-26절
설교_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니
찬양_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기도문_ 다같이

다음 주 예배 섬김 안내
(7월 26일)

대표기도: 정국삼집사
성경봉독: 윤대성집사
헌금위원: 김은영집사
안내위원: 윤대성집사 정윤서집사
주일식사봉사: 남전도회
주일학교돌봄: 김정애집사

※ 주일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서는 주일 오전 9시 45분, 예배준비 기도모임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소식

- 1 | 교육부 및 친교행사부 연석회의. 오늘 주일점심식사 후 오후 1시에 믿음방에서 교육부 및 친교행사부 모임이 있습니다.
- 2 | 영화 단체관람 안내. 다음 주일(7월 26일)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구례자연드림시네마에서 ‘다윗’ 단체 관람이 있습니다.
- 3 | 중고등부 수련회 섬김 안내. 중고등부 수련회 둘째 날(8월 7일, 금) 점심과 저녁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섬겨주실 성도님들께서는 주일점심식사 후 12시 45분에 믿음방에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사랑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 4 | 서윤희어 개업 안내. 정윤서 집사님이 운영하는 서윤희어가 구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떡을 준비해주셨습니다. 7월 21일(화요일) 오전 11시 심방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 5 | 예배당 청소봉사 안내.

예배와 모임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초등부(주일)	오전 10: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0:00
청년부(주일)	오후 1:00
월요성경공부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성경공부	오전 11:00

	예배당1층	예배당2층	계단/현관	화장실	앞뒤 뜰
7월 셋째 주 (7.19-25)	허미선 집사	이옥희 집사 박진 집사	이행순 사모 임혜정 집사	정국삼 집사 김정애 집사	강춘성 장로 김연모 장로